

서울 中區지역 유적 출토 근대 도자

엄승희*

- I. 머리말
- II. 근대기에 형성된 서울 중구지역의 거주여건과 도자 유통
- III. 발굴 유적의 특징
- IV. 출토유물의 특징과 소비 양상
- V. 맺음말

I. 머리말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는 근대기 한양도성 내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이었다. 근대 초기 시가지로서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었고, 이 때문에 왕궁을 비롯하여 외교관저, 관청, 교육기관, 대규모 상점, 회사, 고급 유락시설 등이 밀집해 있었으며 조선인을 비롯해 각국 외국인들의 거주와 왕래가 빈번한 중심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서울 중구는 북쪽의 淸溪川을 중심으로 종로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南山과 경계를 짓는다. 서울 중구지역의 유적은 19세기 말, 소위 仇里介에 인접하는 을지로, 명동, 충무로, 남대문로를 섭렵한다.¹ 이 일대 유적은 1985년부터 宮闕地 일원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었

*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¹ 구리개는 『太祖實錄』, 『都城三軍門分界總錄』, 『六典條例』 등에 등장하며,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한자로 음역한 '銅峴'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고, 이후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가 진행되면서 궁궐 이외 구역의 유적 조사가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² 지역의 특성상 유적지 내부에는 근, 현대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관련 도자유물 또한 상당량 출토되었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유적 조사에 따르면, 궁궐지 출토 유물, 在朝日本人 및 華僑 중국인 밀집지역, 公使館 부근 지역, 조선인 전용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특징적인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구 유적들은 근대기 한성 중심가의 소비유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전반에 걸친 서울 지역의 출토 유물에 대한 발굴조사는 최근 십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궁궐지 일대와 서울 북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시 중구지역 유적들은 문화유적 보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존건물의 증, 개축 등을 위해 2010년을 기점으로 여러 사립 연구기관에서 집중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수도 중심가에서 사용된 생활용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서 근대기의 서울 중구지역 유적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여 이 일대에서 출토된 대표유물들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유적지는 중구의 지형적 환경을 고려하여 분포 지역을 분류할 것이며, 이 유적들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고찰하되, 거주자 성향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이 당대 사용한 그릇들의 유형과 소비경향, 유통 등을 집약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근대기에 형성된 서울 중구지역의 거주여건과 도자 유통

1. 거주여건과 분포 유적의 성격

1876년 2월 27일 체결된 朝日修好條規는 단순히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쇄국정책에서 문호개방이라는 정책변화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외국인의 국내 거류가 금지되었던 원칙이 사라진 것이다.

²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서울 청진6지구유적 1,II』 (2007); 한울문화재연구원, 『鐘路清進1地區遺蹟 1,II』 (2011); 同著, 『鐘路清進5地區遺蹟 1,II』 (2012); 同著, 『鐘路清進2-3地區遺蹟 1,II』 (2013); 同著, 『鐘路清進8地區遺蹟 1,II』 (2013); 同著, 『鐘路清進12-16地區遺蹟 1,II,III,IV』 (2013); 同著, 『서울 청진8지구 지하 보행로부지 유적』 (2016); 불교문화재연구소, 『서울 공평동 유적-청진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2016); 同著, 『서울 청진구역 종각역 개선사업부지 유적』 (2017); 同著, 『서울 청진구역 광화문역 개선사업부지 유적』 (2017) 등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기의 서울 중구 일대는 지난 500여 년간의 쇄국정책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곳이었다. 근대화의 물결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수용했던 이곳은 거주자 유형에 따라 구역별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일제강점기 각계각층의 일본인들이 집중 거주했던 구역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대 초기 內地 자본으로 기반을 잡은 일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동시 雜居한 구역이 있었다.³ 이 경우 대부분 청일전쟁 당시 잔존하던 화교 중국인과 상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로 구성되었다. 일제 강점 이후 이곳은 일부 조선인들의 거주지로 활용된 바 있지만, 점차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 구역으로 교체되었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구역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특수구역으로서, 서양 각국의 공사관과 서양식 교육시설 등이 즐비한 貞洞街에 세계 각국의 政財界 인사들이 거주하였다.⁴ 이처럼 중구 일대는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한 가운데 각국의 동, 서양인들의 출입이 빈번했다. 비록 이러한 구분은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일부 오차를 감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대가 대표적인 일본인들의 경제, 상업 공간이었음은 여러 부분에서 입증된다.

예컨대 이 시기에 신축된 근대식 건축물들은 일본의 정계, 상공계, 언론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 경복궁에서 덕수궁으로 오가는 변화가에는 京城府廳, 三越百貨店, 京城土地經營株式會社, 프레스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상업시설과 유락시설 설립도 크게 한몫 했다.

무엇보다 1882년 朝日修好條規續約으로 한양도성 내에 일본공사관 및 영사관 설치와 공사, 영사, 수행원들의 상주지역이 확정되자, 1883년 貞賢坊(현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던 朴泳孝의 저택을 매수하여 임시 공사관으로 사용하게 되고,⁵ 결국 이는 일대 일본인 거류를 촉발시키는 발단이 되었다. 비록 임시 공사관은 갑신정변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한성조약 체결 후인 1885년(고종 22년) 남산 끝자락의 새 공사관으로 이사하면서 완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를 계기로 중구 일대에는 일본인들의 入京과 거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일본의 이주정책으로 조선에 도항한 중상류층 일본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은 소위 최고 중심지였으며 일제 침략의 주 근거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거주자와 거주환경이 親日的이다 보니, 이 일대 유적은 일본 공관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일

³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1924), pp. 76-79.

⁴ 엄승희, 「근대전환기 국내 사료 분석을 통한 서양자기 사용 실태 연구: 식기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3(2017), pp. 133-139.

⁵ 朝鮮史編修會, 『朝鮮史』 6編 4號, p. 712.

본 거류민 밀집지 주변에 많이 걸쳐지고 있다. 명동과 남대문, 장교동, 초동, 북창동 등이 이에 해당되며,⁶ 특히 명동과 남대문동, 장교동은 조선 건국 이후 수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御用的 성격의 市塵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공간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상관성이 주목된다.⁷ 이밖에도 조선에 적을 둔 일본인들의 식민의욕이 날로 비대해지면서 인근에 日本人居留民會, 商業議會 등이 결성되자,⁸ 주자동으로부터 명동 일대를 근거지로 한 일본인 전용 시가지 조성은 큰 어려움 없이 가능했기 때문에,⁹ 일대 유적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유적 조사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정동의 러시아, 프랑스공사관 유적을 제외한¹⁰ 대부분이 관공서, 일본 상업시설 및 거류민과 상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명동, 남대문동, 충무로 등으로 대표되는 이곳은 애초 근대화의 상징적인 거리로 부상했지만 일본자본의 투자와 일본인 점포가 날로 증가하면서 1920년대 이후에는 완벽한 일본의 독점상권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주체자였던 일본인들이 소비했던 그릇들은 중, 상급의 일본자기가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유적 출토량은 조선백자가 근대기 일본의 수입자기, 즉 일명 ‘왜자기’ 보다 좀 더 많지만, 품질은 백자가 일본자기에 훨씬 못 미친다. 궁궐에서 사용된 李花文 도편과 정세한 백자편이 일부 속해 있지만 그 수가 극히 적으며 대부분은 조질 백자 잔편과 도기편이다. 심지어 조선인 집중 거주지에서조차 중품 이상의 조선백자 출토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은 여러 관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2. 도자 유통

중구 일대 유적에서는 조선 도자를 비롯해 일본자기, 서양자기 등이 고루 출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백자와 일본자기의 출토량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출토유물들은 가깝

6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장교동 유적』(2013);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명동2가 1-1번지 유적』(2013); 同著, 『서울 중구 정동1-45번지 유적』(2013); 同著,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2-11번지 유적』(2016); 同著, 『서울 중구 장교4지구 유적』(2015); 同著, 『서울 중구 명동2가 104번지 유적』(2016); 同著,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일원 유적』(2016);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명동구역 제3지구 유적』(2016); 同著, 『서울 명동구역 제4지구 유적』(2016);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2016); 同著, 『서울 중구 북창동 18-9번지 유적』(2017) 등을 참조.

7 “內部令第九號 “黃土岬으로서 興仁之門지와 大廣通橋로서 崇禮門까지는 一國의 大道어늘 家屋의 犯路와 越川홀이 法에 在亨야 當禁홀지라. 兩路의 原廣이 或五十餘尺이오 七八十尺되는 處가 多亨니 現況의 商務와 較亨면 必要 홀는 路廣에 過홀지라. 設法改良홀이 可홀.” 『高宗實錄』卷34, 高宗33年 9月 29日.

8 京城府, 『京城府史』第2卷(1936), pp. 726-727.

9 京城居留民團役所 編, 『京城發達史』(京城, 1902), p. 362.

10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정동 유적』(2012);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적』(2016).

게는 종로구와도 차이를 보이며 지방산 자기와는 상당히 구별된다. 특히 이곳의 일본자기들은 조선인들의 밀접지였던 종로구 북쪽 유적 출토유물과 비교해 보아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일본자기는 서울 전역에서 대부분 출토되지만, 기종과 품질, 양식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근대기에 가장 대중적으로 유통되던 「大音精製」, 「野田精製」, 「丸音精製」, 「恒春號製」銘 수출용 일본 식기들은 조선의 투박한 백자들과 함께 대다수 유적에서 동반 출토되는 유물이다. 반면 중구 일대 일본인 집중 거주지역에는 이처럼 투박하고 무거운 그릇은 소량 출토되고, 이보다 훨씬 정세하고 품질이 우수한 일본 내수용 식기들이 좀 더 출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대기에 조성된 서울 각 區의 특성과 거주여건에 따라 사용된 도자에 차이가 있었고, 거주자, 건물지에 따라서도 유통을 달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 중구지역 도자 유통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국의 유적지에서 가장 많은 서양자기 도편이 출토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구 정동에 밀집된 외국 공사관, 서양식 숙박시설, 서양 관료들의 주택 인근 유적에서 관련 도편들이 출토되었다. 이는 특별히 歐美人들이 집중 거주했던 정동만의 특성으로, 타 지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유적별 출토유물의 차별화는 유적 구역의 거주환경과 거주자들의 생활여건에 따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백자와 일본자기의 유통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중구의 특성상 일본자기는 이곳 거류민에게 있어 주요 수요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백자는 일본자기의 조선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조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용품이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품질은 상당히 떨어진다. 심지어 일제강점 초기까지 주택지를 유지하던 명동 일대마저 이후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조선인 거주분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결국 유통된 백자의 소비계층은 조선인 하급관료, 상인 등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기 중구 일대 일본 도자 유통의 결정적인 역할은 開市場 지정과 남대문시장의 일본인 상권 장악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선 근대의 개시장은 1882년 임오군란의 타결책으로 제물포조약이 성사되자 같은 날 조일수호조규속약을 조인하면서 서서히 물고를 텃다. 속약의 제1조에 따르면, 3대 항을 개항하고 난 1년 뒤 개시장을 허가한다고 명시하였다. 실제 매년 재조일본인과 일본인 방문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조선 정부는 楊花津에 1차적으로 개시장을 허가했으며 이후 龍山을 거쳐 중구 진고개(泥峴, 현 서울 충무로 5가)로 최종 옮겨갔다.¹¹ 19세기 말엽, 진고개는 일본공사관이 위치한 곳이면서 일본인들의 거류지로서 번창했다. 또한 개시장은 개항기

¹¹ 島村久, 「龍山開市場 視察 및 京城開市約定案 等 論議할 바를 稟申」, 『韓國各地開港關係雜件 1』, 1884. 10. 10.

를 전후하여 외국인 거주와 통상이 허용되면서 구미 각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의 상거래 활동이 활발했다. 일본산 도자기는 개시장의 주요 품목이었다. 개항장을 통해 상당량의 일본자기가 들어왔고 이는 곧 내륙에 있는 개시장으로 유통되었다. 따라서 중구 일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각종 일본도자는 근대 문물을 가장 먼저 수용할 수 있었던 개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듬해인 1883년, 일본 상인의 일본 진출을 공식 허가한 朝日通商章程 체결을 기점으로 일본 도자를 비롯한 각종 외국 도자들의 유통 및 수요공급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무렵 개시장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監理署는 각종 외국 물류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세관 업무를 담당했는데, 도자기도 이에 속했다.¹² 또한 남대문시장은 조선 후기까지 조선인 시장을 대표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리의 公設市場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인 상점들이 대거 입주했고, 곧 京城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본시장으로 성장했다. 남대문 시장은 지리적으로 볼 때 주변에 일본 상류층, 관리 등의 왕래 및 거주가 빈번했고 일본인 상권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경성 시내에서 일본자기 유통이 매우 빈번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³

이처럼 많은 양의 일본도자들이 유통되던 중구는 일대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에게까지 그 여파를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존 중국인과 內朝한 구미인들도 저렴하면서 화려하고 실용적인 일본도자의 구입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중구의 도자 유통은 주요 거주민들을 통해 확산되었을 것이며 소비 심리 역시 동일선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 구조는 가까운 종로구에 형성된 市廳行廊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분명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판매에 따른 이권, 품목 및 수량 등에 있어 국산품과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III. 발굴 유적의 특징

수도 중심에 위치한 서울 중구는 남쪽이 용산구와 경계에 있는 남산으로 막혀 있고, 북쪽은 청계천로를 경계로 종로구와 접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구의 소비유적을 살펴보기 위해

¹² 『日省錄』高宗32年 6月 12日; 『高宗實錄』高宗32年 6月 12日.

¹³ 陳內六助, 『京城府管內地籍目録』1-2 (大林圖書出版社, 1982); 中村資兩, 『朝鮮銀行會社要録』(東亞經濟時報社, 1921) 참조.



도1 서울 중구지역 대표 유적 분포도

경계구역을 남산과 청계천으로 지정하고, 발굴조사가 집중된 중구 북쪽의 명동, 남쪽의 남대문로, 서쪽의 정동을 구분하여 출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도 1).

1. 명동 주변 유적

중구 북쪽에 해당하는 이 구역의 거리들은 근대기 대부분 시가지로 발달되었다고 보아도 될 만큼 변화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청계천 남쪽 일대를 ‘南村’으로 불렀던 지역에 해당되지만,¹⁴ 근대기에는 조선조와는 달리 일본인들의 왕래가 번성하면서, 소위 ‘상업 특수구’로서 성장했다. 남촌은 거주자의 90%가 일본인에 해당될 정도여서 이 일대는 일본인 전용 거주지였다고 보아도 될 만하다. 현재까지 명동과 장교동 일대 발굴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인근 초동에서도 유사 유물들이 수습되어 거주민 및 소비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

¹⁴ 李裕元, 『旬一編』, 『林下筆記』卷32(1871).

1) 명동 유적

명동은 중구 유적 가운데 근대 도자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에 속한다. 근대 이전의 명동은 民家 밀집지역이었지만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침투하면서 이곳은 점차 상업지구로 개발되어갔다.¹⁵ 특히 일제강점 당시 인접해 있는 충무로와 남대문로 일대가 경성의 최고 繁華街로서 변모하게 되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명동 일대 유적 발굴은 최근 외국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에 비례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新館 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대부분 시작되었다. 명동구역 제1지역~제4지역까지의 발굴조사과정에서 근대 도자 관련 유물이 발굴된 곳은 제 3, 4 지역이며, 이외 명동2가에서도 집중적으로 발굴되었다. 현재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에서도 지역적 특성상 근대 유물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명동 2가의 유적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명동2가 1 1번지 유적과 명동2가 104번지 유적의 근대층~조선후기층과 근현대층에서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1 1번지 유적은 1892년에 설립된 명동성당의 인접지로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¹⁶ 조사지는 명동성당 부속 主教館(현, 使徒會館) 앞 부지로서, 19세기 말엽 명동성당의 구내 인쇄소가 있었던 곳이다. 발굴 당시 근대기에 조성된 건물지 3개동이 확인되었고, 건물지마다 골고루 근대 도자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온돌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지에서는 조선조 분청자, 백자, 흑유자와 더불어 근대 도자들이 동반 출토되었으며, 기종은 발, 잔, 접시, 호, 병, 화분 등 생활용기들이다. 수습 유물의 대부분이 잔편이지만, 구연부만 일부 파손되어 전형을 알 수 있는 일본자기들이 포함되어있다.



도2 <백자청유화조문접시편>. 근대, 높이 19cm, 구경 10.8cm, 저경 6.1cm,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명동2가 1-1번지 유적』, p. 117)

발견되는 도자 가운데 발과 접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특히 백자류는 비록 조질하지만 일본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일본자기 중에는 근대 유적지에서 가장 흔히 발굴되는 백자청유접시 및 발이 이곳에서도 발견된다. 백자청유자들은 백토로 만든 그릇 내면을 투명유로 시유하고 외면은 녹색유로 시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백자청유자는 壽福文과 같이 간단한 시문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화려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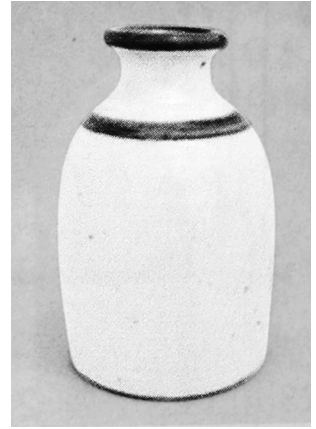
¹⁵ 중구문화원, 『일제강점기의 명동』, 『명동변천사』(2003), pp.92-93.

¹⁶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명동2가 1-1번지 유적』(2013).

양장식을 곁들이기도 한다. 예컨대 1 1 유적에서는 고려청자에서나 볼 수 있는 운학문을 화려하게 장식한 접시편이 등장하여 일본적 취향을 느낄 수 있다(도 2). 대다수 일본자기들은 백색도가 높고 굽의 안쪽이 외측 보다 깊게 깎는 제작기법, 번조의 흔적 등에서 조선백자와 구분된다. 일본자기 가운데 드물게는 제조사명을 굽 안쪽에 표기한 것도 발견되지만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그릇들이 근대기 재조일본인 공장이나 朝日合資工場 등을 통해 생산, 유통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본자기로 통칭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¹⁷

이외에도 새우문, 문자문, 화초문 등 이색적인 문양이 시문된 각종 일본자기들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 「仁川製長罍/ 대도/ ■■軍」을 포함하여 굽 내부에 상표, 문자 등을 표기한 것들이 일부 포함되었고, 문양장식은 생략되었으나 완전한 근대

식 기형들도 보인다(도 3). 서양식기에서 볼 수 있는 세련된 접시와 컵, 병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부분 반수공 반기제로 생산된 듯한 그릇들로, 테두리와 동체 중간에 청색안료로 線文을 장식했다. 상대적으로 백자는 일부 잔편을 제외하면 완형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유물이 몇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들은 인근 종로구 유적에서도 유사 유형을 흔히 발견할 수 있어 유통체계를 짐작할 수 단서를 제공한다(도 4, 5). 명동성당 부지 내부 건물에는 극소수 조선인 직원을 제외



도 3 <백자청화선문병>, 근대, 높이 9.9cm, 구경 3.4cm, 저경 5.9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서울 중구 명동2가 1-1번지 유적』, p. 129)



도 4 <백자청화영지문잔>, 근대, 높이 4.3cm, 구경 7.5cm, 저경 3.5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서울 중구 명동2가 1-1번지 유적』, p. 134)



도 5 <백자청화영지문잔>, 근대, 높이 4.5cm, 구경 7.8cm, 저경 3.8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종로 중학구역유적』, p. 110)

¹⁷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경인문화사, 2014), pp.257-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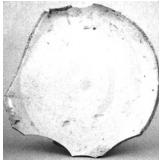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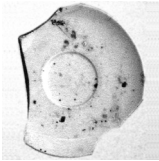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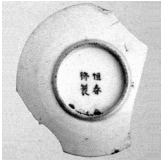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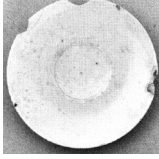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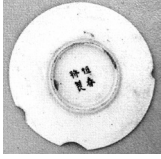


하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출토유물은 일본인을 비롯한 중국인, 러시아인 등 명동성당 건립과 관련이 있는 이들이 대부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 유적과 몇 블럭 사이에 있는 104번지 유적은 시굴된 트렌치 2군데가 근, 현대시기 관련 유구로 밝혀졌다. 유적은 일제강점기 京城郵遞局 주변에 위치한 곳이며 맞은편에 朝鮮銀行이 있었다. 건물 자체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근대식 건물인데다 일본자기 출토량이 확연한 점에서 일본인 거주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확인되는 유물은 층위별, 건물지별로 다소간 구별되지만 대부분 발, 잔, 접시류 등 생활용 기들이 차지하며, 19세기 후반 관요백자편이 소수 출토된 것 이외에는 모두 일본자기들이다. 개 중에는 「恒春號製」銘 식기와 같이 대중적인 수출용품들도 포함되었다. 가령 「恒春號製」銘 백 자청화매화모란문접시편(佐賀県 嬉野)에는 동체 전반부에 걸쳐 매화와 모란문이 전시기법으로 빼곡하게 장식되었으며 굽 안쪽으로 「恒春號製」를 청화로 표기하였다. 「恒春號製」銘 식기들은 인근 명동구역 제3지구, 청진 12 16지구, 동대문유적 등지에서 동일하게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일대에 유사 제품들이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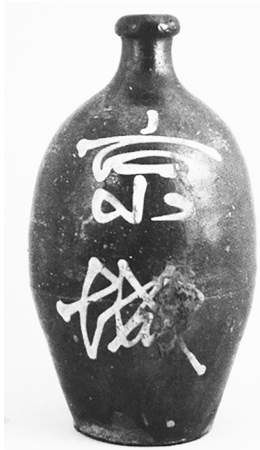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일본 수입식이 가운데는 이처럼 굽 안쪽에 일명 「■■■製」 표기가 자주 사용되었다.¹⁹ 그런데 「恒春號製」 표기는 ‘형춘[恒春]’이 대만 남단의 소도시라는 점에서, 이 그릇들이 정

〈표 1〉 서울 일대 유적 출토 「恒春號製」銘 도자 유형

유적	유물		유적	유물	
명동2가 104번지 유적			동대문 유적		
명동구역 제3지구 유적			청진12-16지구 유적		

¹⁸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중학동 유적』(2009); 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운동장 유적』(2011);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명동구역 제3지구 유적』(2016) 참조.

¹⁹ 일본자기 굽 안쪽 표기는 일반적으로 상표, 人名, 제조사, 제조국, 생산지, 기념일 등을 의미한다. 大橋康二, 『近代期肥前陶磁名款集』(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2006), pp.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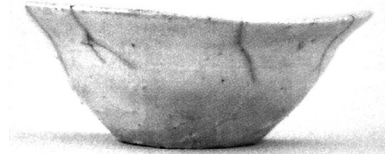


도 6 <갈유도기병>, 근대, 높이 26.3cm, 구경 4.4cm, 저경 8.7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서울 중구 명동2가 104번지 유적』, p. 90)

통 일본인이 제작했기보다 19세기 말 잔존하던 華僑, 중국계조선인 혹은 중국계일본인이 일본으로 도항하여 현지 공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뢰하여 생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⁰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대중적인 일본 식기에 비해 질이 다소 떨어지고 전사기법이 아닌 형지, 스텐실기법의 사용, 외형이 분원백자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근현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일본자기들은 유색이 백색을 띠는 상품자기부터 회백색, 청백색을 띠는 중품들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상품자기 가운데는 내수용품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는데, 특히 접시편들의 구연은 대부분 직립한 것이 특징적이면서 청채, 홍채로 각종 화문, 문자문 등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들이 이에 속한다. 한편 이 유적에서는 일본자기와 더불어 갈유, 청유로 시유한 도기 일부가 출토되었다. 이 중 『京城(朽)■繁』銘 갈유도기병은 가격대가 저렴한 일제강점기 조선산 酒

瓶의 전형을 보여준다(도 6).²¹ 이밖에도 근대~조선후기 문화층에서는 유색이 탁하고 접시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말기 백자편 일부가 출토되었다(도 7).²²

서울 명동구역 제3, 4지구 유적은 을지로 일대를 지로 2가 185 11번지, 을지로 2가 161 1번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발굴이 이루어진 곳들이다.²³ 유적 근방



도 7 <백자잔편>, 근대, 높이 3.4cm, 추정구경 8.8cm, 추정저경 3.8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서울 중구 명동2가 104번지 유적』, p. 82)

²⁰ 기록에는 19세기 말엽,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嬉野) 근방에서 이 계통의 그릇들이 제작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작자(의뢰인)가 누구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조선으로 수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등은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통 일본자기에 비해 인지도, 단가 등이 떨어졌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1909-1910년간 장탕지(張堂階)에 보이차를 전문 생산하는 '恒春號'라는 회사가 설립된 바 있어 이의 인과관계 역시 차후 밝혀야 할 것이다. 中島浩氣, 『肥前陶磁史考』(靑潮社, 1985), p. 195; Xu, Y.H, 『中國普洱茶文化大觀』(雲南美術出版社, 2013).

²¹ 엄승희, 앞의 책, pp.284-302.

²² 예컨대 회백색을 띠는 일부 접시편들은 굽의 내화물 번조흔적과 구연이 외반되고 외면의 영지문과 線文 등 시문 장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말기 조선백자의 전형을 띤다.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서울 중구 명동2가 104번지 유적』(2016),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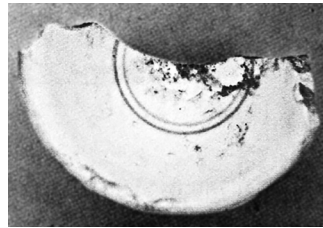
²³ 한강문화재단연구원, 『서울 명동구역 제3지구 유적』(2016); 同著, 『서울 명동구역 제4지구 유적』(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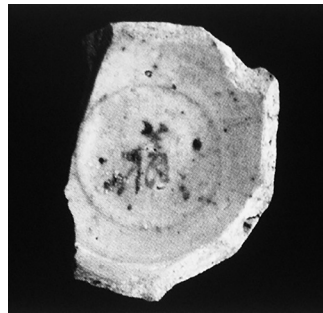
도 8 <일본자기>, 근대, 한강문화재연구원(『서울 명동구역 제3지구 유적』, p. 6)

에는 南部廳舍, 體府廳, 惠民署, 掌樂院 등 조선조 관아들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실 조사지역은 한양도성 중심에 위치한 민가 밀집지였다. 그러나 개항기 이후에는 일본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掌樂院 자리에 東洋拓殖株式會社 등 근대 건축물들이 점차 들어서면서 완전한 일본인 중심가로 변모하였다. 이 유적들은 시굴조사 결과 근대중~조선후기층이 총 2개 확인되었고, 출토물은 백자와 일본자기였다(도 8). 백자들은 대부분 회백색을 띤 발, 접시, 잔 등 생활용기들이다. 백자편 가운데 壽, 福자문이 들어간 각종 그릇들이 포함되고 초화문, 선문 등의 채색장식과 묘사에서 인근 종로 청진동, 중학동 유적 유물과 매우 흡사한 점이 발견된다(도 9, 10).

명동 유적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명동2가 1 1번지 유적과 명동2가 104번지 유적에서 발견된 일본자기들은 명동에 거주하던 내외국인에게 유통되던 대중적인 그릇들로 단정할 수 있다. 즉 수출용 일본자기를 비롯하여 <『川鳴酒場/電話一三二番/多比 寿や/■■■■九十二號』銘酒瓶>과 <『唾壺つばはき/野村製』銘唾壺> 등 용도가 분명해 보이는 일본의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이를 대변한다. 반면 전 유적에서 발견된 백자는 전형적인 말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근대기의 조선요업 실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명동구역 제3, 4지구 유적은 그 변화상을 民家遺蹟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 9 <청화초화문백자편>, 근대, 한강문화재연구원(『서울 명동구역 제4지구 유적』, p. 93)



도 10 <백자청화「福」銘저부편>, 근대, 잔존높이 4.7cm, 저경 8.3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종로 청진지구 유적』, p. 13)

2) 장교동 유적

장교동은 청계천 최남측에 위치한 동으로, 행정구역상 종로구와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교동에는 조선조 한양을 5부 52방으로 구획할 때, 종로구 관철동과 중구 장교동을 잇는 長通橋가 설치되었으나 1958년에 실시한 청계천 복개공사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2003년 청계천 생태 하천사업으로 복원된 바 있다.

현재까지 장교동 유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장교 4지구 유적(88 5번지)과 장교구역 제5지구 유적(22 4번지) 등이 진행되었다. 이 유적들은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조선인들의 최대 거류지였던 종로구와의 소통이 매우 원활했을 것으로 보여, 출토 유물들간의 관련성이 예측된다.

먼저 청계천 남측의 장교 4지구 유적은 인근에 水標橋, 惠民署 등 조선조 관아부지였던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 유적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명동구역 제3지구, 장교구역 제5지구 등과 인접한 가운데, 발굴조사 시 각 유적에서 유사 건물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근, 현대층에 총 7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지만,²⁴ 유적이 南部官衙가 자리한 위치 때문인지 조선조 분청자와 백자 등 총 280점(77.6%)이 수습되었다. 근대도자는 각 건물지 별로 조선백자, 일본자기 등이 출토되었다. 기종은 발, 잔, 접시 등 생활용기들이 대부분이며, 식별이 가능한 명문이 굽과 동체 중앙에 새겨진 사례가 속해있다. 가령 ‘壽’, ‘食자문을 필사 혹은 도장으로 찍어 표시한 발과 접시편들은 기벽이 두꺼운데다 굽 바닥의 내화토 번조상태 등으로 보아 모두 조선산으로 보이며, 간략한 영지초화문, 모란문(도 11), 초화문, 매송국죽문 등을 시문한 접시, 호 등도 조선산이다. 그 밖의 대다수 유물들은 일본자기에 속하며, 굽 내부에 「眞世特製」, 「直野精米所」 銘을 시문한 발편 등과 당초문을 시문하고 유상채 안료로 문양을 추가 장식한 화려한 일본자기들이 눈



도 11 <백자청화모란문호편>, 근대, 잔존높이 6.5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중구 장교4지구 유적』, p. 143)



도 12 <백자청화이화문잔편>, 근대, 높이 3.4cm, 구경 5.6cm, 저경 2.4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중구 장교4지구 유적』, p. 142)

²⁴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장교4지구 유적』(2015), pp.87-93.

에 띈다. 또한 동체 상단에 李花文과 「京城■■■業組合」을 써 넣은 〈백자청화이화문잔편〉(도 12)과 〈大日本肥前國有田城鳴製〉銘 백자발, 〈專賣特許四一三二四〉銘 백자청화초화문잔편, 〈■■造株式會社京城〉銘 백자청화동체부편, 〈■■(光)(3)一四〇七番■■〉銘 백자청화문구연부편 등은 백색도가 띄어나고 두께가 비교적 얇은 고급 일본자기의 전형을 보인다. 몇몇은 시문된 명문 일부가 조선의 왕실 및 판매 독점권, 행정구역 표기 등과 관련되어 조선 정부에서 기념, 답례 등을 위해 일본에 주문의뢰 혹은 조선의 합자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을 보여준다(표 3).

장교구역 제5지구 유적은 시굴조사 결과 조선조 중인계층들이 모여 살던 민가 건물지로 판단되었다.²⁵ 시굴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건물과 맞는 문화층이 2곳이 파악되었지만 토층의 양상으로 보아 상당한 교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대 유물들은 조선백자와 일본자기가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발, 종지, 접시, 잔, 호, 병 등 생활용기들이다. 백자들은 소성과 시유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접지면에 모래받침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많고 묵서명이 있는 접시들의 경우 상태가 좋지 못해 판독마저 불가능하다. 80점 가량의 백자편이 출토되어 다른 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발견했지만, 대부분 잔편들이어서 구체적인 유형을 알 수 없는 편이고 조선 후기와 시기구분이 뚜렷하지 못한 애매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일본자기들은 외면에 '福', '壽', '祿'자가 金彩로 시문된 화려한 것들을 포함해, 대부분이 유색이 맑은 백색이며 투명유를 고르게 시유한 중, 상품들이다. 특히 접시류는 구연부와 굽이 직립하고 구순은 둥글게 마무리한 것들이 많으며, 문양 역시 운룡문, 기하문, 선문, 초화문 등 다양하다. 다만 명문이 있는 일본자기는 〈東陽二十八製〉銘 저부편이 유일하게 출토되었다.



도 13 〈백자다채조문발편〉, 근대, 높이 5.5cm, 구경 13.9cm, 저경 5.6cm, 고려문화재연구원(『서울 장교구역 제5지구 유적』, p. 180)

한편 이 유적은 시굴조사 이후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보다 다양한 조선백자, 도기, 일본자기들이 발견되었다. 일본자기는 투명유와 직립굽의 접시, 발들이 출토되었고 조선백자는 죽절 굽, 직립굽, 내저원각의 접시, 사발, 병, 종지, 잔 등과 녹유 및 불투명유의 도기편이 일부 출토되었다. 일부 백자에서는 「九中左?」, 「金」銘 이외 판독이 불가능한 묵서명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자기의 경우, 일제강점기 벽돌과 콘크리트 잔존 건물지에 속한

²⁵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장교동 유적』(2013), p. 39.

III문화층에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聖鳥文이 장식된 〈백자다채조문발편〉(도 13)을 비롯해 화엽문, 가옥문, 문자문 등이 전사처리 혹은 시문된 녹유, 투명유의 각종 발, 접시 일체가 웬만큼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저부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가늠하기 어렵다.

출토유물의 전반적인 양상은 장교 4지구와 흡사하지만 명문자기가 다소 적게 출토되고 상대적으로 조선백자의 양이 많은 편이며, 일본자기는 보다 다양한 종류가 분포되었다. 백자는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조선말기 백자 유형을 간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근 종로구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백자유물들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근대의 건축물이 많은데다 유난히 고급 일본자기 출토량이 많다는 점은 종로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초동 유적

초동 유적은 72-10번지 일원이 유일하게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장교동과 마찬가지로 청계천 남측에 위치하면서 명동, 충무로, 을지로에 둘러싸여 있다. 유적 주변은 조선조에는 永禧殿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침탈의 선봉에 섰던 불교종파 西本願寺 京城布教所가 위치해 있었다.²⁶ 이에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와 근, 현대 유구층이 확인되었다.²⁷ 근대 도자유물은 건물지 12개소가 조사된 근, 현대문화층과 조선시대 문화층 4개소에서 출토되었으며, 조선 백자, 일본자기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이외 청자 1점이 발견되었다. 조사지가 전통과 근대식 기법을 혼용하여 축조한 건물이 있었던 자리여서 일본인 거주민 구역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는 전통방식의 축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여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시기차를 두고 함께 거류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도자의 분포는 일본자기가 전체 출토품(총 84점) 가운데 13점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백자로서 조선 후기 이후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우선 근, 현대문화층에서는 청화를 시문장식한 발, 병, 잔, 睡具, 墩 등 생활용기로 쓰인 백자 및 일본자기 그리고 도기, 청자편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일본자기는 그물문, 초문, 초화문, 운학문 등이 그려진 것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백자다채초화문잔편〉의 경우, 노란색, 녹색, 황색 등 다채로운 색감의 초화문이 외부 전면에 장식되었고 내저면 중앙에는 金彩로 ‘福’자문을 시문하여 매우 특징적이다(표 3). 또한 수출용 일본자기

²⁶ 성주현, 『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 불교 포교활동과 성격』,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1910년대』(2005), pp. 162-167.

²⁷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2016), p. 70.

를 대표하고 서울 전역에서 출토된 「大音精製」銘 백자 발편[大串音松, 佐賀県 嬉野, 〈녹유백자초문발편〉이 동일하게 출토되었고, 그 외 일본어 글귀를 시문한 기념, 홍보성 접시편들도 동반 출토되었다. 이러한 그릇들은 관공서나 유명 식당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 청자편이 1점 출토되어 주목되는데, 〈청자철백화국화문잔편〉은 양식적으로나 품질면에서 근대기 일본인 공장에서 생산된 고급 재현청자로 보기는 힘들다(도 14). 다만 조선인 공장에서도 일부가 생산되었으므로 이에 속할 수 있거나 조선조에 간헐적으로 생산된 제품일 수 있다.

백자는 無文을 비롯해 국화문(도 15), 길상문, 영지문, 초문, '壽', '福'자문 등이 시문된 후, 말기 백자편들이 출토되었다. 유색은 청백색, 백회색이 주류이며 굽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반침 흔적이 뚜렷한 것들과 포개구이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각종 생활용기들이 출토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품질이 좋지 못하다.

그 외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도 일본자기가 소수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일본자기는 조선인들이 개항을 전후하여 쓰던 초기 수입품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발굴된 일본자기편 대부분이 금채와 화려한 색감, 전사기법, 중국풍 백자 등 고급품이라는 점 때문에 일제 강점 이전 조선인 거주자들의 생활여건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초동 유적은 인근에 일본 불교의 최고 종파의 진원지가 있었고 일대가 변화가였다는 점으로 거주민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거나 그 수준이 낮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인들이 동반 거주했다면 이들 역시 중상류 계층이었다고 여겨진다.

2. 남대문로 주변 유적

조선 말기 이후 남대문 일대 거리는 일본인 중점 상업지역으로 서서히 변모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일본적인 기호에 맞는 상점 입점은 물론 각국 물품 구매상점들이 즐비하여 일본인들을



도 14 〈청자철백화국화문잔편〉, 근대, 높이 4.8cm, 구경 7.7cm, 저경 3.8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 p. 92)



도 15 〈백자청화국화문발편〉, 근대, 높이 7.5cm, 추정구경 15.6cm, 추정저경 7.8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 p. 91)

비롯하여 조선인, 서양인들의 왕래는 항상 문전성시였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일본인 상인과 조선인 등은 일본자기 사용이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대 발굴유적의 조선 후기층 대부분에서 말기 백자도 적지 않게 출토되어 조선인 거주자들도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남대문로와 인접한 회현동, 북창동 일대의 출토유물은 근대기에 형성된 상업인구의 생활상을 대변하고 있는 듯, 백자와 일본자기는 물론 서양식기, 도기주병 등 매우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된다.

1) 남대문로 유적

남대문로 일대 유적은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유적이 현재로선 근대유물이 출토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시굴조사에서 10개의 트렌치 중 7개의 내부에 근대식 건축물이 확인된 만큼 이 지역은 명실상부하게 근대 유적지로 볼 수 있다. 특히 트렌치 3곳이 1933년에 신축된 金千代빌딩(구 서울경찰청)과 관련된 부지이며, 이 빌딩은 한때 일본 사이토주조회사(齊藤酒造會社)의 술창고와料亭 등으로 쓰인 점에서 출토물 가운데 이와 관련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⁸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은 조선백자편과 일본자기편 일부이다. 조선백자는 잔, 호, 발편이 대부분이며, 간단한 초화문, 영지문, 수복자문(도 16) 등과 판독이 어려운 묵서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無文이며 조질하다. 일본자기는 『大日本肥前國有田製』銘 백자발편(佐賀県 有田, 『MARUZEN'S INK, TOKYO』銘 갈유자병)을 비롯해 외면 전반에 녹색과 적색으로 화당초문을 화려하게 시문한 〈백자오채화당초문발편〉, 〈도시풍경문 연적〉, 백색도가 탁월한 일부 잔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인근 명동일대와 정동에서 출토된 것들과는 달리 보다 세련되고 다채로운 색감의 고급품으로 분류되어, 내수품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근대문화층의 건물지에서 보다 다양한 근대도자들이 추가 발견되었다. 우선 백자로는 『明白酒』銘 백자청화호편이 돋보인다(표 3). 이 유물은 조사지에 존립했던 주조회사와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층에서도 일부 외산자기와 백자, 흑유자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된 일본자기



도 16 〈백자청화「壽」자문발편〉, 근대, 높이 7.6cm, 구경 7.8cm, 저경 5.4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일원 유적』, p. 135)

²⁸ 『서울市警 內資洞에 새廳舍』《京郷新聞》1986.10.21;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일원 유적』(2016), pp.69-75.



도 17 <백자초화문잔편>, 근대, 높이 5.4cm, 추정구경 9.1cm, 저경 4.9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일원 유적』, p. 148)

는 산수문, 화조문, 화문, 학문, 용봉문, 오채문 등을 시문 혹은 전사처리한 접시, 발, 연적, 잔, 애자와 각종 백자녹유편 등 의외로 다양하며, 「陶製」, 「梅香製」, 「音/七ト特製」, 「菊水硬質陶磁器/tsujiso Co.」, 「KORAN」 등 명문을 남긴 각종 생활용기들 까지 풍부하게 속해 있다. 유난히 백색도가 높고 투명한 유색을 띠는 일본자기들은 대체로 고급품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굽 안쪽에 「PORCELAINE OPAQUE DE GIEN/MANGALORE」 銘과 상표도안을 시문한 프랑스 지앙(Gien)의 <백자초화문잔편> 1점이 동반 출토

되어 주목된다(도 17). 서양식기가 발굴되는 사례는 대부분 貞洞街의 공사관터와 궁궐지 인근, 대규모 소비유적에 국한된 편인데,²⁹ 이 유적 역시 거상 일본인들의 집무처가 있었고 시내 최고 중심가에 위치하여 값비싼 서양식기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남대문시장의 일본상점에서 유럽자기들이 유통되어 공급이 수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도 갈색유의 도기호편 2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구연부에 뚜껑을 돌려 끼우는 형태와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 일자로 곧게 벗은 동체 등에서 조선산이 아닌 일본에서 수입된 술독으로 간주된다(도 18). 마찬가지로 유적지터에서 운영되었던 주회사 및 요식점과 상관된 것으로 보인다.



도 18 <갈유도기호편>, 근대, 높이 49.2cm, 구경 12.0cm, 저경 18.4cm,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일원 유적』, p. 183)

2) 회현동 유적

회현동1가 142 11번지 유적은 시, 발굴조사 결과 조사된 4개 층위 가운데 일제강점기 문화층(II층)이 확인되었다. 특히 잡석독립기초 건물지, 기단 지정석렬, 장대석석렬 등이 조사 과정

²⁹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편, 『서울 행당동 주개장 유적: 서울 행정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2011); 고려문화재단연구원·서울중부교육청, 『서울 정동 유적』 (2012);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 유적』 (2016); 同著,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등을 참조.

에서 확인되고, 주변 토사에서 근, 현대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 일제강점기 유구로 판단하였다.³⁰ 이 유적은 지리적으로는 남대문로와 인접하지만 남산의 북쪽 산자락에 위치하여 번잡한 상가구역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다. 그럼에도 확인된 유구들은 모두 건물지 관련 유구들이어서,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건물이 있었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적은 중구의 타 유적과는 달리 백자는 물론 정세한 일본자기들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수습 유물은 시굴조사에서 도기화분 3점이 확인된 것이 전부이다(도



도 19 <도기화분편>, 근대, 높이 18.6cm, 구경 26.7cm, 저경 19.6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2-11번지 유적』, p. 58)

19). 발견된 도기들은 동일 위치에서 모두 출토되었고, 유형이 안정적인 원통형이면서 구연 주변에 점토를 둘러 장식하거나 흑회색을 띠고 있는 점 등에서 모두 유사하다. 이 유물들은 근대기에 대량 생산된 개량도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 유적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토물이 적지만, 일대에 일제강점기 및 조선조 건물지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는 바, 차후 주변의 발굴조사가 겹해지면 이 유적의 조사내용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 북창동 유적

북창동 일대는 18 9번지 유적을 비롯해 일대 소구역의 발굴조사가 시행되었고, 각 유적마다 근대 건물지가 발견되었다.³¹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8 9번지 유적은 시굴조사에서 근대~조선 후기 유구 2개층이 확인되었다. 1914년의 지적도에 따르면, 이 유적에 규모가 매우 큰 건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물은 원래 한국 전통 가옥이었으나 후에 근대양식을 도입하여 건축물을 보수 설계한 흔적을 발견했다.³² 따라서 출토유물은 조선후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될 수 있었다. 시굴조사 당시 유물은 <滿留壽製>銘 백자저부편)과 굽 내부에 판독

³⁰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2-11번지 유적』(2016), pp.35-36, 51.

³¹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서울 북창동 93-52번지 일원 호텔건립 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2014); 국방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12길 10 복합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2015);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북창동 18-9번지 유적』(2017).

³²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북창동 18-9번지 유적』(2017), pp.49-52.



도 20 <백자다채「壽福」문발편>, 근대, 높이 6.4cm, 구경 15.4cm, 저경 7.0cm,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북창동 18-9번지 유적』, p. 65)

이 불분명한 <백자청유잔편> 등 일본자기 2~3점과 극소수 조선 후기 백자편에 불과했다. 발굴조사에서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위에서 백자편과 일본자기편들이 보다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백자는 발, 잔이 출토되었는데, 유색은 회색을 띠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는 등 대부분 품질이 떨어진다. 일본자기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 고급품들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발편들의 태토는

백색에 가깝고 저부 전체를 시유한 다음 접지면의 유약을 걷고 번조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동체 중앙에 비교적 정교하게 ‘壽’, ‘福’자를 청화로 넣은 각가지 발편들이 일부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동체에 수복자문과 굽 안쪽으로 「大日本 大野堂」을 표시한 <백자청화수복문발편>, 굽 안쪽에 ‘百’자를 넣은 <백자청화수복문호편>, <백자다채「壽福」문발편>(도 20) 등이 이에 속한다.³³ 그런데 이곳에서 출토된 수복자문편들은 유난히 분원백자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일본은 근대 초기 도자수출 극대화를 위해 조선양식과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용기들을 제작하였다.³⁴ 출토유물들은 이러한 정책성에 힘입어 생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외에도 일대 유적에서 대부분 출토되는 <백자청유접시편>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출토되었으며, 송화문, 화문 등이 청화로 시문된 뚜껑, 숟가락 등 생활용기들도 발견되었다.

3. 정동 유적

정동은 남대문, 명동과는 거리상 크게 멀지 않지만, 이들과는 별개의 구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근대기 정동가를 외국 公使館 및 서양의 근대 시설물의 밀집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국가의 서양인들의 거주 및 왕래가 빈번했던 차별화된 구역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항 이후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구미 각국 9개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되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를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중국, 벨기에에서 정동 일대에 공

³³ 주 19를 참조.

³⁴ Andre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Leipzig: Hiersemann, 1929), p. 58.

사관을 차례로 개설하였다.³⁵ 정동이 이른바 ‘공사관 구역(Legation Quarters 혹은 Legation Street)’으로³⁶ 거듭날 수 있었던 원인은 경복궁, 경운궁 등 궁궐들은 물론 都城의 4대문인 興仁門, 敦義門, 崇禮門, 肅淸門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실생활이 매우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궁을 빈번하게 출입하고 황제를 알현해야 했던 공, 영사관, 외국 귀빈들에게는 이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동 유적은 일대 부지에 속했던 프랑스공사관과 러시아공사관 터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식 조사되었고 큰 주목을 받았다.³⁷ 먼저 프랑스공사관 유적(정동 27 31번지)은 동일 장소에 있었던 西大門高等小學校가 1973년 폐교하면서 移轉해 온 창덕여자중, 고등학교의 중, 개축 공사를 계기로 시, 발굴조사되었다. 근대 초기, 공사관의 맞은편에는 러시아공사관, 官立法語學校, 梨花學堂, 손탁호텔(Sontag Hotel), 정동교회 등 근대 서구문명의 개척으로 설립된 관공서, 교육기관, 숙박시설이 일렬로 들어서 있었다. 비록 조선의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 프랑스와의 수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1886년 극적으로 수교가 체결되고 1888년 6월, 프랑스공사관이 종로구 관수동 한옥에 최초 개설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시행된 유적은 1896년경 초대 주조 공사였던 빅토르 콜랑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의 주도 하에 유럽풍으로 건축된 정동의 신사옥이었다.³⁸

따라서 프랑스공사관 유적은 새롭게 단장된 유희피안 양식의 공사관 일부 면적과³⁹ 조사지역 동남쪽 일대에 부속시설로 보이는 유구 4기를 조사한 것이다.⁴⁰ 유물은 근대문화층에서 모두 출토되었으며, 공사관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양자기편 21점과 분청자 1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부속시설의 근대층위에서도 일부 서양식기들이 출토되어 프랑스공사관과의 상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발굴된 서양자기들은 완형이 거의 남아있지 못하고 식기로 추정되는 잔편들이 대부분 수

35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주변에 위치했던 독일영사관(1891), 이탈리아영사관(1902) 등의 구역은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6 《獨立新聞》1896년 8월 20일 광고.

37 국립문화재연구소, 『주한러시아대사관 건립부지에정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2000);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정동 유적』(2012);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적』(2016).

38 이 건축물은 당시 조선 정부가 프랑스에서 공식 고빙한 궁중건축가 조제프 오귀스트 살라벨(Joseph Auguste Salebelle)에 의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공사관은 을사늑약(1905)과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영사관으로 격하되고 서대문구 합동으로 이전하는 등 파란을 겪었다.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정동 유적』(2012), p. 130.

39 朝鮮建築學會(編), 『朝鮮と建築』26(朝鮮京城府: 朝鮮建築會, 1935) 참조.

40 고려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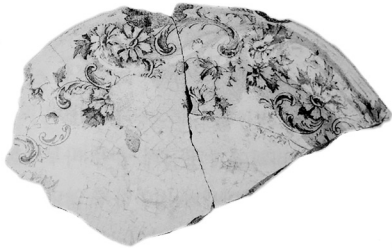


도 21 <백자튐문탕기편>, wedgwood, 근대, 높이 8.0cm, 고려문화재연구원(『서울 정동 유적』, p. 151)



도 22 <백자꽃무늬탕기>, 프랑스 리모주, 19세기 말-20세기 초, 높이 12cm, 구경 14.3cm, 저경 15.5cm, 국립고궁박물관(궁중유물전시관, 『오얏 꽃황실생활유물』, p. 23)

습되었다. 대표적인 발골품은 용도가 불분명한 그릇의 동체 및 구연부, 저부, 3~4인이 스투(stew) 혹은 수프(soup)를 즐길 수 있는 탕접기편(도 21, 22), 접시, 뚜껑, 약병 등이다. 시문장식은 형태 외면에 코발트색, 노란색, 녹색 등의 다채로운 안료를 사용하여 꽃과 줄기를 아르누보양식으로 표현한 것에서부터 튕립문, 국화문 등을 전사처리하거나 화엽문, 파도문 등을 양각한 것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전사처리된 문양들은 매우 섬세하면서 정교한 유럽자기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 프랑스, 영국 등 현지의 유명 공장 제품일 것으로 추정된다(도 23). 유색은 모두 백색이며 전반적으로 시유상태가 정선된 고급품이다. 다만 명문이나 상표가 표기된 것은 「Wedgwood」, 「pheix luneyille」 銘 도편 2점이 발굴된 것에 그친다.⁴¹ 이외에도 일대에서는 다양한 색깔과 문양장식의



도 23 <백자화문뚜껑편>, 근대, 높이 4.3cm, 구경 25.0cm, 고려문화재연구원(『서울 정동 유적』, p. 153)

타일(tile)편이 소수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 건물의 바닥이 테라조(terazzo)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陶磁材는 아니지만 근대기 건축자재 사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한편 공사관의 북동쪽에 인접한 정동 1-45번지 유적에서는 감리교 선교사 사택 건물지에서 유상채와 실크스크린기법의 백자 및 청화백자편, 백자청유접시편 등 총 3점의 일본자기 및 중국자기가 출토되었다(도 24).⁴² 인근에 정동교회, 이화학당 등 기독교

⁴¹ 엄승희, 앞의 논문, p.138.

⁴²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정동 1-45번지 유적』(2013), pp.7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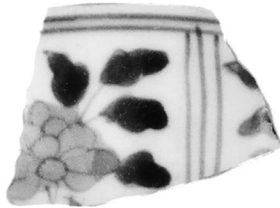
관련기관들이 모여 있어 해외선교사들의 거주 구역과 유물의 상관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양식기는 출토되지 않고 일본자기 계통만 출토되어 인상적이다.

러시아공사관 유적(사적 제 253호)은 프랑스공사관 유적 맞은편에 위치한다. 르네상스 풍으로 지은 이 건물은 스위스계 러시아 건축 기사였던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세레진 사바친(Afanasii Ivanovich Seredin-Sabatin, 1860~1921)이 설계했다.⁴³ 1890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1896년 아관파천 때 고종과 순종이 일시 거처하기도 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공사관의 본체가 파괴된 후 탑 일부만 남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이후 2014년 러시아공사관 유적은 '서울시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시굴조사에 그친 유적은 유구의 잔존규모와 형태, 유물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⁴⁴ 수습된 유물은 공사관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양자기 3점과 조선후기 백자편(도 25) 등 19점 등에 불과하다. 프랑스공사관과는 대조적인 유물 분포를 보이지만, 건축자재로 쓰인 일본산 청화타일이 눈길을 끌고(도 26), 덴마크 왕실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로얄 코펜하겐(Royal Copenhagen)의 접시편(도 27)이 발굴된 점에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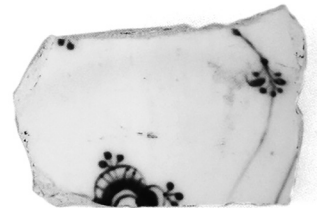
도 24 <백자다채풍경문발편>, 근대, 높이 7.4cm, 구경 18.8cm, 저경 8.8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중구 정동 1-45번지 유적』, p. 97)



도 25 <백자청화화문구연부편>, 근대, 잔존높이 3.3cm, 추정 구경 12.0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적』, p. 115)



도 26 <백자청화모란문전편>, 근대, 잔존너비 7.8cm, 두께 1.8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적』, p. 102)



도 27 <백자청화초화문접시편>, Royal Copenhagen, 근대, 잔존높이 2.5cm, 추정저경 14.9cm, 한울문화재연구원(『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적』, p. 85)

⁴³ 타치야나 심비르체바·박정신, 「조선국왕폐하의 건축가 사바친」, 『제4회 국제한국사학회 논문집』(2013); L.H.언더우드, 신복룡 역, 『상투의 나라』(집문당, 1999).

⁴⁴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적』(2016), pp.63-64, 81.

개항 이후 자국민에 의해 설립된 두 공사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이곳의 거주자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로 보인다. 구입경로는 도항 당시 직접 들러온 것에서부터 남대문시장, 수입상점 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영국, 덴마크 자기들이 이 유적들에서 발굴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자국에서 들여왔기보다 다국적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어 구입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IV. 출토유물의 특징과 소비 양상

1. 유물의 특징

서울 중구지역 유적에서 출토되는 도자들은 기종의 구성과 출토 유적의 성격, 출토 범위 등에서 일부분 차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조선백자를 살펴보면, 명동일대, 남대문로 일대 유적에서 일괄적으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조선 후, 말기 백자로 편년되며 일본자기에 비해 기종은 좀 더 다양하지만 수량은 유적마다 차이가 있다(표 2). 유적 출토품의 차별화는 주 거주자의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컨대 조선인이 외국인보다 좀 더 많이 거주했던 장교동 유적의 경우, 상당량의 백자, 도기 등이 출토되었지만 정동 유적의 경우 극소량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 현상은 인근 종로구, 동대문구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출토된 백자 기종

〈표2〉 서울 중구지역 유적 출토 도자의 수량과 기종

구역	유적별 출토량(백자/일본자기/서양자기/기타)	기종
명동 일대	명동2가 1-1번지(22/8/0/9), 명동2가 104번지(11/7/0/5), 명동구역 제3지구(16/8/0/3), 명동구역 제4지구(9/4/0/1), 장교4지구(36/21/0/7), 장교5지구(80/14/0/12), 초동 72-10번지(28/13/0/4)	발, 호, 병, 잔, 접시, 애자, 타구 돈, 막자, 베투
남대문로 일대	남대문로 4가 17-23번지(11/22/1/2), 북창동 18-9번지(8/7/0/1), 회현동1가 142-11번지(0/0/0/3)	발, 호, 병, 잔, 접시, 애자, 연적, 술병, 독, 잉크병
정동 일대	정동 1-45번지(0/4/0/1), 정동 27-31번지(0/0/21/1), 구 러시아공사관(3/2/1/1)	발, 접시, 탕기, 타일, 애자, 술독

*수량 오차범위 ±3.5%p 기타는 분청자, 청자, 도기, 흑유자 등

은 발, 호, 접시, 잔, 종지 등 생활용품이 주류를 이루며 이 역시도 한반도 전역의 근대기 가마터

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근대기에 확산되는 굽 내부의 상표, 제조장 등의 표기는 매우 드물고 그나마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백자의 제작 시기와 유적과의 상관성을 고려해 보면, 백자의 유통 범위가 분원 일대를 중심으로 한 경기 일원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대 초기에 해당되는 19세기 말엽 경에 한성에 유통된 백자는 분원의 민영을 전후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유색은 백회색과 청백색을 띠는 것이 많으며 시유상태는 고르지 못한 것과 정선된 것이 두루 섞여있다. 시문장식은 길상문, 영지문, 초문, 수복자문 등 다양하다. 접시는 굽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며 더러 포개구이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발은 외반형, 사선형, 직립형 등 다양한 편이며, 잔은 외반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유형들은 분원리 가마(1752~1895) 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⁴⁵ 출토백자 전반이 조절하여 실수요자가 그다지 형편이 좋지 못한 조선 인이거나 당시 유통 백자의 품격이 이미 하향평준화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본자기는 정동의 공사관 유적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일률적으로 출토되었다. 실상 근대기 일본자기는 전국의 가마터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으며, 이 사실로 인해 일본자기의 유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대략 19세기 후반 경으로 추론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중구 유적에서 출토된 일본자기는 발, 병, 잔, 주자, 접시류가 많지만 그 외 애자, 타일 등과 같은 특수기종이 일부 포함되었다.

출토 일본자기는 일본 내수품과 수출품으로 大分할 수 있다. 실제 이 일대 유적에서는 굽 내부에 표기된 명문에서 일본 내수품으로 추정되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일본 내수품은 명동 104번지 유적, 장교 4지구 유적, 남대문로 4가 17 23번지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품은 대부분 유색이 백색이면서 가볍고 문양장식은 화려한 화문, 화조문이 주류이다. 또한 기법적으로는 문양장식을 위해 유상채를 비롯해 전사기법, 스텐실기법 등을 혼용하였고, 성형은 반수공 반기계로 완성하였다.

수출용 일본자기들도 이에 못지않게 출토되었는데, 주목되는 점은 명동구역 제3, 4지구 유적의 경우 민가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건물의 밀집지에 못지않게 이 같은 일본자기들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인근 區에서 동일하게 출토되는 대표적인 생활용품인 「大音精製」, 「恒春號製」銘 식기들과 백자녹유식기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대부분은 굽 안쪽에 제조사를

⁴⁵ 최경화,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14), pp. 241-243.

뜻하는 명문들을 표기하였다<표 3>.⁴⁶

<표 3> 대표 출토 유물의 명문

유적	유물	명문(右, 유물나열순)
명동2가 1-1번지		「福祿壽/福岐433」 「仁川製長署/대도/■■軍」 「福」 화문형태의 상표(판독불가)
명동2가 104번지		제작처의 상표(판독불가) 「福」「金露」 「恒春號製」 「京城/朽■繁」
명동 구역 제3지구		「唾壺つばはき/野村製」 「川嶋酒場/電話一三二番/多比 寿や/■■■■九十二號」 「恒春號製」
명동 구역 제4지구		「青山萬里一舟」 「泉山」(상표로 추정) 「壽」「囍」
장교 4지구		「大日本肥前國有田城嶋製」 「貞せ特製」「食用飯」 「■(光)(3)一四〇七番■」 「■造株式會社京城」「力一」 「直野精米所」 「專賣特許四一三二四」 「京城■■■業組合/ISS」
장교 5지구		「福」 「東陽■二十八製」 「壽福」
초동 72-10번지		詩文이 전사기법으로 장식 「壽」 「大音精製」 「福」「食」 詩文이 필사로 장식

⁴⁶ 한글문화재연구원, 『서울 중로 중학천 유적』(2011); 同著, 『鐘路 清進1-3, 5, 12-16地區 遺蹟』(2011-2013); 서울특별시·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운동장 유적 I,II,III』(2011) 등 참조.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大日本肥前國有田製」 「MARUZEN'S INK. TOKYO」 °「陶■製」 °「PORCELAINE OPAQUE DE GIEN/MANGALORE」 °「梅香製」 「宝」 °「音/セト特製」 「菊水硬質陶磁器/tsujiso Co」 「KORAN」 °「明白酒」
북창동 18-9번지		검은색 부호 표시 °「萬留壽製」 °「壽」 °「壽福/大日本 大野堂」 「壽福」 「壽福」
정동 1-45번지		***「立上製」 작방부호 추정 문양
정동 27-31번지		**「Wedgwood」 **「pheix luneyille」
구 러시아 공사관		**「Royal Copenhagen」

|| 명문표기 || *조선백자 **서양자기 ***중국자기 일본자기는 무표기(단, °°는 조선 수출용 자기)

조선에 수출된 일본자기는 기종이 단순하고 무역 상품으로서 혈값에 대량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선백자를 대체하는 그릇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동대문, 행당동 폐기장유적에서는 단순히 백자의 대체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특수 기종이 많고 품질마저 우수한 예가 많아, 두 유적간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⁴⁷ 가령 중구 일대에서 사용된 각종 그릇들이 인근에 폐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특이한 기형과 문양의 내수품들이 폐기장유적에서 발견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분청자, 도기, 재현청자 등이 출토되었다. 분청자는 근대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구의 교란으로 인해 조선 초기의 것들이 1~2점 뒤섞여 출토

⁴⁷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서울 행당동 주개장 유적: 서울 행정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2011); 서울특별시·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운동장 유적 I, II, III』 (2011).

된 것으로 보인다. 도기와 재현청자는 근대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식적으로 전통성을 많이 상실하거나 개량된 것들이 출토되었다.

서양자기는 공사관터에서 발견된 22점과 남대문로4가 17 23번지 유적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명문을 남기는 사례는 3점 정도에 불과하여 자국 상품의 수요량과 구입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기종은 서양음식의 특성상 접시가 가장 많고 굽 달린 탕기, 잔, 타일 등도 있다. 양식적으로는 아르누보(Art Nouveau)풍의 각종 화문이 전사기법으로 장식되어 세련되고 화려하다. 그러나 대다수는 무문의 세련된 백색식기들로 추정되어 양식상 단조롭다. 모두 기계생산된 제품들로서,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전격 도입된 석고성형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반적으로 백색도가 유난히 탁월하고 시유상태가 고르다.

2. 소비 양상

중구지역 유적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은 이 지역에 거주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생활상을 대변한다. 또한 근대기에 설립된 건축물의 성격과 운영이 반영되어 있다. 한양도성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지리적 특성상 백자는 물론 내수용, 수출용 일본자기의 소비 배경을 구별하는 것이 사용 계층과 유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이다.

유적지별로 수습된 백자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품질이 좋지 못하다. 이는 분원의 민영을 전후한 요업실태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무렵의 요업실태를 밝힌 『荷齋日記』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자기의 공급은 다소 늦은 감이 있거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기록했지만⁴⁸ 일본 규슈(九州)일대의 생산품들이 백자 대체품으로 수요공급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⁴⁹ 일본자기의 조선 진출은 일본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기점으로 자국 도자의 수출정책을 강화하여 매우 전략적인 제작방식을 도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⁵⁰ 당시 중구지역에는 이주, 방문을 목적으로 한 일본인을 비롯하여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거주하였다. 특히 조일수호조약 체결 이후 일본공사관저가 충무로에 개설되자 주변에 중상류층 일본인의 거점지가 형성되었다. 상인, 경영자, 고위 관료 등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일본 내수용의 고급 일본자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의 이주정책에 힘입어 조선에 들어온 빈민 일본인층도 상

⁴⁸ 지규식 저 서울특별시국사편찬위원회 편, 『國譯荷齋日記(一), 1891』(2007), pp.202-204.

⁴⁹ 小山一徳, 『朝鮮の窯業』, 『工政』127(1930), p.26.

⁵⁰ 中島浩氣, 앞의 책, p. 608;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美術史論壇』29(2009), pp.210-213.

당 수 동거하고 있어,⁵¹ 저가의 내수품들이 일부 일본인들을 상대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출용품들 역시 전 유적에서 골고루 출토되었는데,⁵² 개항 이후 값이 저렴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일본자기들은 조선시장을 장악하면서 조선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유통되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종의 일본자기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유입되어 대다수 유적에서 내수품과 수출품이 공존 출토되지만, 회현1가 142 11번지 유적에서와 같이 일본자기가 일체 출토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이 사례를 두고 일본자기의 선호도와 사용 여부를 논할 수 없지만, 적어도 거주자 분포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도자의 소비양상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발굴 조사된 유구들은 조선시대 건물지와 일제강점기 건물지가 중첩되어 분포된 구역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일대 거주자들의 교체 및 이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생활용기의 소비도 변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조에 사용했던 백자와 근대 이후 일본자기의 소비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이 유적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정동 일대에서 발견된 서양자기들은 프랑스, 러시아공사관과 관련 부속시설에서 사용한 생활용기들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이곳에서 사용했던 식기류의 구입경로는 자국에서 직접 들여왔거나 일본을 경유한 수입품을 국내에서 구매, 혹은 조선 왕실에서 직접 대여, 조달, 기증하는 경우들로 구분할 수 있다.⁵³ 당시 구미 공사관들은 자체적으로 연회를 수시 베풀었기 때문에 민찬에 필요한 각가지 기명들을 완벽하게 구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1892년 한성주재 외교관 및 영사관 클럽(Cercle Diplomatique et Consulaire)이 형성되면서 이 거리에는 클럽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교류, 모임 등이 끊이지 않아, 다양한 서양식기들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그러나 서양자기는 고가이면서 판매처가 흔치 않았던 이유 때문인지 일본인들의 집중 거주지인 남대문 유적에서 1점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적에서는 일체 출토되지 않았다. 출토유물 대부분은 굵과 동체에 제조사를 밝히는 명문(상표)이 생략되었다. 이 부분은 日本陶器會社, 펠리뷔(Pillivuyt), 지앙, 세브르(Sèvres) 등 각국의 회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들과 차별된다. 고궁박물관 소장품들의 경우, 황실에서 쓰던 이화문 식기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공식 수입하여 지정 회사가 웬만큼 정해져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

⁵¹ 京城府, 앞의 책, pp.789-790.

⁵² 朝鮮統監府, 『統監府統計年報』(1904-1910); 朝鮮總督府, 『朝鮮貿易年表』(1910-1942) 참조.

⁵³ 엄승희, 앞의 논문, pp.133-146.

⁵⁴ 《帝國新聞》1899년 5월 1일.

중 일본, 프랑스의 도자가 가장 많다. 반면 중구 유적에서 발굴된 서양자기들은 전술하였듯이, 공사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방문객, 인근 재력가들의 역량에 따라 구매의 비중과 규모가 달랐을 것으로 보여, 보다 다종다양한 그릇들이 대중적으로 소비되었을 것이다.

다만 서양자기는 워낙 특수 기종이어서 근대기 유적에서의 출토사례는 극히 희소하다. 오히려 서양자기 전세품들은 고궁박물관에 대부분 소장되어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과 용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을사늑약(1905)을 계기로 프랑스와의 외교는 전면 축소 개편되었고, 1949년 정식 국교가 재수립되면서 공사관(영사관)에서 사용하던 기명들이 국가에 반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고궁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일부가 이에 속할 수 있다.

중구지역 유적에서 다양한 종류의 도자들이 출토되는 양상은 결국 이 일대 거주자들이 선호하던 취향과 생활여건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조선 말기 요업상태가 쇠퇴되는 상황과 관련이 깊을 것이고, 근대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비 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서울 중구 일대에서 출토된 근대 도자유물의 현황을 통해서 조선백자와 조선에 유입되었던 일본자기 및 서양자기의 성격, 기종, 유적별 특징 및 사용 계층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출토 유물들은 특징적으로 행정구역상 거주자 분포와 이 지역에 개설한 각국 공사관과 관청, 일본계 회사, 상점 등의 설립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일대 유적의 성격은 대부분 조선조 건물지와 근대기 신축 건물지 층위가 중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출토유물의 특징은 백자의 경우, 분원 민영 이후의 조질 백자들이 대다수 차지하며, 일본자기는 기종과 품질 등에서 인근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급품이 좀 더 많다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반면 서양자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고급 일본자기와 서양자기의 출토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 지역의 외국계 시설물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근대기 중구는 구매력이 있는 재조일본인과 정관계 인사들의 주거주지이면서 도심 내 최대 상업공간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구역 안에 남대문시장과 개시장이라는 인프라는 일본자기 수요를 상승시킨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중구는 해외 거주자와 방문자가 성장,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창출시키기에

최적화된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유통된 일본자기의 구매 목적은 그릇에 담긴 철학이나 미감을 고려했다기보다 친숙하고 쓰임이 좋은 생활용기로 쓰이기 위해서였다. 이 시기 일본의 對조선 수출정책으로 일본자기의 시장 점유율은 날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본자기 공급은 수요에 따른 순이익의 극대화에 초점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출토 백자의 유형을 종합해 보면, 전형적인 분원 말기의 형식보다도 질이 떨어지며 기종도 병, 발, 잔, 접시 등 생활용기에 국한되어있다. 이러한 일면은 한양도성의 중심지인 중구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생활이 결코 녹록치 않았거나 일본자기 구입에 보다 친숙했음을 대변한다.

근대의 서울 중구는 각종 도자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유적발굴조사는 근대 전반에 걸친 이 지역 도자유통과 수요공급을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향후 좀 더 진척된 유적발굴과 인근 지역과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소비도자와 거주환경과의 인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근대 도자(modern ceramics), 서울 중구(Jung-gu in Seoul), 조선백자 Joseon white porcelain, 일본자기(Japanese ceramics), 공사관터(sites of legations), 명동 유적(Myeongdong site), 남대문 유적(Namdaemun site), 정동 유적(Jeongdong site), 소비유적(remains of porcelain consumption)

■ 투고일 2017년 8월 31일 | 심사개시일 2017년 9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0월 19일 ■

참고문헌

1. 사료

『高宗實錄』

『日省錄』

《京鄉新聞》

《獨立新聞》

《帝國新聞》

2. 한국어 문헌

고려문화재연구원·서울중부교육청, 『서울 정동 유적』, 2012.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장교동 유적』,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주한러시아대사관 건립부지예정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00.

국방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12길 10 복합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5.

L.H.언더우드, 신복룡 역, 『상투의 나라』, 집문당, 1999.

박은숙, 『시장으로 나간 조선백자』, 역사비평사, 2016.

방병선, 『임란이후 조선도자 대일관계를 중심으로』, 『한일 도자문화의 교류양상』, 경인문화사, 2005.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도요지와陶磁器』, 2006.

서울특별시·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운동장 유적 I,II,III』, 2011.

서해문화재연구원, 『서울 충무로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1-1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5.

성주현, 『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 불교 포교활동과 성격』,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일지사, 1996.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 -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 『근대전환기 국내 사료 분석을 통한 서양자기 사용 실태 연구: 식기를 중심으로』, 『美術史學』33, 2017.

李裕元, 『旬 編』, 『林下筆記』 卷32, 1871.

지구식 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國譯荷齋日記()』, 1891』, 2007.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美術史論壇』29, 2009.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명동구역 제3지구 유적』, 2016.

, 『서울 명동구역 제4지구 유적』, 2016.

한강문화재연구원·정화예술대학, 『서울 중구 정화예술대학 신관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2012.

한국고고인류연구소, 『서울 중구 남산동2가 49-2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15.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서울 행당동 주개장 유적: 서울 행정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문화유적 시·발굴 조사』, 2011.

, 『서울 북창동 93-52번지 일원 호텔건립 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14.

한울문화재단연구원, 『鐘路清進5地區遺蹟 I,II』, 2012.

, 『서울 중구 명동2가 1-1번지 유적』, 2013.

, 『서울 중구 정동1-45번지 유적』, 2013.

, 『鐘路清進12-16地區遺蹟 I,II,III,IV』, 2013.

, 『서울 중구 장교4지구 유적』, 2015.

,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2-11번지 유적』, 2016.

, 『서울 중구 명동2가 104번지 유적』, 2016.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일원 유적』, 2016.

,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 2016.

,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적』, 2016.

,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약보보고서』, 2016.

, 『서울 중구 북창동 18-9번지 유적』, 2017.

3. 동양어 문헌

京城居留民團役所 編, 『京城發達史』, 京城, 1902.

京城府, 『京城府史』 第2卷, 1936.

大橋康二, 『近代期肥前陶磁名款集』, 左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2006.

朝鮮建築學會 編, 『朝鮮と建築』 26, 朝鮮 京城府: 朝鮮建築會, 1935.

朝鮮總督府, 『朝鮮貿易年表』, 1910-1942.

,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朝鮮統監府, 『統監府統計年報』, 1904-1910.

中島浩氣, 『肥前陶磁史考』, 青潮社, 1985.

中村資兩,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

陳內六助, 『京城府管內地籍目錄』 1-2, 大林圖書出版社, 1982.

4. 서양어 문헌

Eckardt, Andre.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Leipzig: Hiersemann, 1929.

국문초록

서울 중구는 朝日修好條規 속약의 체결을 계기로 일대에 외국 공사관이 개설되자 외국인들의 입경과 거주가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은행, 동양척식회사 등 굴지의 일본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최대 經營街, 상점가를 형성하였다. 주거주자와 방문자들 가운데 재력과 권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밀집한 것은 이 일대 유적의 출토물과 밀접하게 상관된다.

출토되는 도자유물은 조선백자, 일본자기, 서양자기 등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 기종과 유통 범위가 시기별로 변화하면서 수요공급 양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백자는 하향평준화가 본격화되는 19세기 후반 이후의 생산품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중구지역 유적에서 출토되는 백자는 기종과 기법 등에서 분영 민영 이후 쇠락된 전형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모든 유적에서 일괄적으로 백자는 출토되었지만, 일대 조선인 거주자들의 생활기반이 그다지 높지 못하거나 백자보다 일본자기 수요가 더 풍부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자기를 비롯한 수입자기의 출토는 확인되는 사례가 풍부하다. 일본자기는 대부분 일본 규주(九州)와 나고야(名古屋)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차지하지만 일부는 일본 내수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근의 종로구, 서대문구와 비교하면 소비된 품목들이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 「大音精製」, 「恒春號製」銘 식기들과 백자녹유식기들은 꾸준히 발견되는 양상을 보이며, 그밖에도 다양한 생활용기들이 출토되었다. 일본자기는 일부 양질품의 경우 소비자의 수준과 위치가 상대적으로 우월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중적인 그릇들은 가까운 南大門市場이나 開市場에서 공급받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眞洞街에서 수습된 일부 서양자기편들은 이곳에서 거주하던 공사관, 외국숙박시설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 일본자기의 소비인식은 백자와 차이를 보였으며, 발견되는 사례에서도 기종과 수량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내에서의 도자 생산여건과 관련이 깊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했던 기계생산제품들은 조선 말기백자와는 상당히 차별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이 가능하다. 중구는 한양도성의 중심에 위치했고, 근방에 궁궐과 관청, 외국계 기업 등이 자리하여, 이 지역의 실권자는 재력과 권력을 두루 갖춘 각계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유적에서 발견되는 도자의 상당수는 이들을 상대로 소비되었을 것이며, 때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선인과 조선 요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도자문화수용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인적구성이 중구에 밀집했다는 점에서 이 일대 유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

Abstract

Modern Ceramics Excavated in the Archaeological Sites of Jung-gu in Seoul.

Eom Seung-hee*

As foreign legations were established in Jung-gu of Seoul after the Japan-Korea Treaty of Amity, foreigners began to travel to and reside in the area. Lat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area became the most thriving business and shopping district, as the leading Japanese companies such as the Joseon Bank and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opened their offices there. The excavated porcelain in this area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travelers and residents, who were rich and powerful.

Generally speaking, various kinds of ceramics were excavated in the area including Joseon white porcelain, Japanese porcelain, and Western porcelain. However, the kind of porcelain and the area of its distribution might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period. The white porcelain found in the district was mainly made after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quality of white porcelain became lower. In other words, the white porcelain excavated in the sites of Jung-gu illustrates how the variety and quality of object types and techniques for making white porcelain declined after the Bunwon was privatized. This low quality of the white porcelain might be derived from the low standards of living of the Joseon residents in the area or from the higher demand for Japanese porcelain than Joseon white porcelain.

*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Research Institute

Japanese porcelain was excavated in abundance compared to Joseon porcelain. Most of the Japanese porcelain had been produced in Kyushu and Nagoya for export, but some of them were made for domestic consumption. The kinds of items consumed in the area are similar to those in the neighboring Jongno-gu and Seodaemun-gu. Table wares with an inscription such as “Daion seisei” (大音精製), “Kōshun gō sei” (恒春號製) and those with green glaze have been constantly found and other table wares were also excavated. Some high-quality Japanese porcelain were consumed by the high class. However, popular vessels were supplied in the nearby Namdaemun Market or the state-sanctioned market. In addition, Western porcelain shards collected in Jeongdong Street seem related to the legation, who resided in the district and foreign lodges.

The Japanese porcelain excavated in the Jung-gu was different from Joseon white porcelain in terms of their kinds and the quantity of each kind. This is rela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ir condition in porcelain production. For example, the Japanese porcelain manufactured by machines could not be produced in Korea at that time, so that it was very distinct from late Joseon white porcelain in the Korean market. As Jung-gu wa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apital Hanyang and close to palaces, governmental offices, and foreign companies, many of the residents in the district were financially and politically powerful figures in various fields. They were the consumers of much of the porcelain excavated in the area, which consequently affected Joseon people and their porcelain production. The sites in Jung-gu are important in that the residents mainly consist of the people who could lead the introduction of a new ceramic culture to Korea.